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상담하세요!

어디가



adiga

대입정보포털어디가

어렵고 다양한 대입전형 '어디가'를 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온라인 상담
www.adiga.kr



전화 상담
1600-1615

04 꿈이 영그는 현장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률 70%1"
실력과 인성 겸비한 고졸인재 기른다

09 네 꿈을 펼쳐라

대건고 벤처동아리 3D공작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학생 창업가

40 교육웹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다있다

50 진로직업인

캐릭터 디자이너_백운화 퍼피스튜디오 대표
공감 이끈 캐릭터의 힘, 역대 매출 작가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하여

꾸미와 함께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교육결손 회복]



안전한 2학기 개학



학습결손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하나! 종합적으로 진단해요

지역 및 단위학교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 진단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학생 교사

코로나19로 인한 초·중학생(초3, 중2)의 학습, 정서 발달 및 신체건강에 대한
생애 누적 결손 조사 및 맞춤형 방안 지원(21.-)



둘! 학습결손을 회복해요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생 수준·희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학습결손 회복 및 기초학력 강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안팎, 방과 후·방학 중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



셋! 몸과 마음도 회복해요

일반학생, 고위험군 학생 모두에게 상황에 맞는 심리·정서 등 지원

심리· 정서	모든학생	정상군	관심군
	심리·정서 진단	심리·정서적 지원(개별)	치료 지원 (개별)

사회성	도래활동	교외 체험학습
신체·건강	신체활동	바른 자세 및 식습관 개선 예방교육

사회성 함양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몸과 마음 건강의 총체적 회복을 도모

CONTENTS

20

특별기획

열아홉, 당당한 직장인을 희망합니다



청년층 중에서도 고졸자의 고용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졸 구직자들이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여기서는 고졸 구직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신산업 분야로의
학과 재구조화를 비롯하여 지역협업 기반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그리고
도제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고졸
취업자에 대한 우대정책과 현장성 있는 고졸인재 양성방안을 소개한다.

더 큰 긍정의 에너지로 끌어당김이 통하는 취업문화를 열자!
직업계고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 추진
열아홉,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를 경험하다
직업계고 학생 지역밀착형 고속연자로 키운다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37

정책을 말한다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학생의 학습결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종합적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교육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회복을 위한 종합방안을 소개한다.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CONTENTS

09

vol.470 2021 SEPTEMBER



‘첨단기술을 익혀서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자!’는 대건고등학교 3D공작소 학생들. 이들은 3D프린터뿐만 아니라 일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며 레이저커팅, 3D모델링, 업사이클링, 도시재생건축, AI자율자동차 등 다양한 공작 기법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적정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사회적 가치와 공헌을 추구하는 소셜임팩트가 자리하고 있다.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강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객원)강지영
사진 김경수, 이대원, 박성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춘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 20 특별기획**
열아홉, 당당한 직장인을 희망합니다
- 더 큰 긍정의 에너지로 끌어당김이 통하는 취업문화를 열자!
 - 직업계고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 추진
 - 열아홉,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를 경험하다
 - 직업계고 학생 지역밀착형 고속로자로 키운다
 -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 50 진로직업인**
캐릭터 디자이너_ 백윤화 퍼피스튜디오 대표
공감 이끈 캐릭터의 힘, 역대 매출 작가로

- 04 꿈이 영그는 현장**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률 70%!” 실력과 인성 겸비한 고졸인재 기른다
- 09 네 꿈을 펼쳐라**
 대건고 벤처동아리 3D공작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학생 창업가!
- 12 삶과 교육**
 발달장애아와 박ես터선생님의 음악세계
 숫자 게임-손기호로 음악을 배운다
- 16 교실혁명**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온라인 기초학력 교실
- 37 정책을 말하다**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
- 40 교육웹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다 있다

- 42 교육자치시대**
 울산광역시교육청_학업중단예방사업
 위기학생의 든든한 울타리로 학업중단율 ‘전국 최저’
- 45 이달의 교육뉴스**
 교육부,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한다 외
- 46 교육포커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성공 조건
- 54 일상의 씬표**
 땀방울을 구슬로 빚어내는 땅, 강진
- 58 이야기 인문학**
 ‘금메달’이 아니어도 괜찮아
- 61 명예기자 리포트**
 여름방학에도 학교 문은 열려 있어요~ 외
- 64 숫자로 읽는 교육**
 204,693점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률 70%↑” 실력과 인성 겸비한 고졸인재 기른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7.7%로 미취업률(29.8%), 진학률(42.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채용 시장은 잔뜩 얼어붙었고, 특히 고졸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전 지역의 취업 명문이라 불리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조중택)는 지난해 취업률 70.7%를 달성하며 이름값을 했다. 고졸 취업 한파 속에서도 곳곳이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여상의 비결을 들어봤다.

글_양지선 기자

“차렷, 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1일, 네 명의 학생이 줄을 지어 대전여상 교장실로 들어왔다. 방학 중임에도 학교를 찾은 이들은 최근 취업에 성공한 고3 학생들이었다. 곧 출근을 하게 된 학생들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조중택 교장을 찾아와 인사를 하러 온 터였다. 일렬종대로 들어온 이들의 예의 바른 인사 합창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조중택 교장은 이제 막 사회로 발을 내디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응원했다.
“인사와 시간 엄수, 단정한 복장은 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학교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죠.”

우리 학교는 누군가 강제로 규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규칙을 정합니다. 선배들이 기틀을 쌓고, 후배들이 잘 이어온 덕분에 취업 명문이라는 전통이 생겼죠. 3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과 인성이 몸에 밴 대전여상 학생들은 기업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전여상은 선후배 간 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올해 3월에는 졸업생 50여 명이 학교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교생활에 관한 조언을 건넸다. 애교심 넘치는 동문들은 졸업 후에도 후배들을 잘 이끌며 학교 행사에도 발 벗고 나선다고 한다. 조중택 교장은 “졸업생들이 열심히 회사생활을 해온 덕분에 지역사회에서 대전여상 학생들은 믿고 채용한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은 다시 후배들에게 취업길을 열어주며 선순환이 이뤄진다. 학생들은 스스로 대전여상 출신이라는 것에 무척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 1 올해 취업에 성공한 대전여상 3학년 학생들 (왼쪽부터 홍진아·박영비·김혜진·김보람)
- 2 1948년 개교한 대전여상은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작년에 창의관이 신축되며 교내 실습실은 총 21개로 늘어났다.



취업길 열어주는 졸업생 멘토링

전교생 573명인 학교는 학년별로 IT사무행정과 4학급, 회계융합행정과 6학급을 운영한다.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인 대전여상에서는 학과별 필수 과목 이외에 ‘창구 사무’, ‘비서’, ‘유통’, ‘고객관리’ 등의 과목을 선택해 들으며, 두 학과의 학점 교류도 가능하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대전 관내 다른 특성화고의 전공 수업도 수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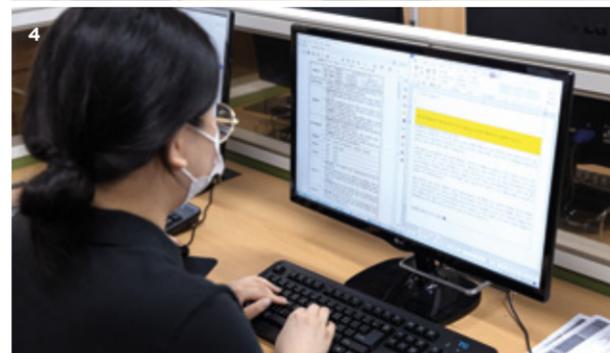
66

선배들이 기틀을 쌓고 후배들이 잘 이어와서 취업 명문으로 거듭났죠.

99

3 학교는 질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입사 지원 서류작성부터 면접까지 교사의 일대일 맞춤형 지도가 이뤄진다. (코로나19 이전 촬영)

4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전공 수업과 동아리, 방과 후 수업만으로 평균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전공 수업과 동아리, 방과 후 수업만으로 평균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학교는 질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입사 지원 서류작성부터 면접까지 교사의 일대일 맞춤형 지도가 이뤄진다. 주말을 이용한 기업 탐방 등 외부 특강은 연 20회 이상 운영된다. 이런 철저한 취업 대비 프로그램 덕분에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공기관에 15명, 대기업에 16명, 중소기업에 96명이 일반사무직으로 합격하며 취업률 70.7%를 기록했다.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통해 대학에 다니는 졸업생도 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수능이나 내신 반영 없이 면접과 학업계획서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양재만 홍보부장교사는 “대전권에 취업한 학생들은 주로 충남대, 한밭대로 진학하며 특히 한밭대 회계학과 재학생의 80% 이상이 대전여상 졸업생이다. 수도권에서는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에 많이 간다.”라고 설명했다.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탐방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학과체험으로, 각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과목 수업을 들어보는 활동이다. 실습 위주의 수업에 게임 형식으로 재밌게 구성해 참여도를 높인다. 하반기에는 입시설명회와 견해 학교 시설 탐방이 이뤄진다.

조중택 교장은 “신입생 내신 성적이 300점 만점에 280점 이상이 상당수일 정도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전여상을 선택해서 온다. 우수 신입생 유치가 취업률로도 이어지기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년별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취업 동기부여

대전여상은 학년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동기부여에 힘쓴다.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1학년 때는 직업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성향에 맞는 직업 찾기, 일일 체험 위주의 직업탐색을 한다. 2학년에 올라가면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맞춰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1주일간 회사에서 출퇴근하며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는 직무체험이 이뤄진다. 3학년은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주력해 서류와 면접 대비 위주로 진행한다. 학생들의 직무체험을 위해 학교는 대전지방세무사회와 협약하고, 매년 세무사무소 40여 곳에 학생들을 2~3명씩 파견했다. 직무체험에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직장에 절교육도 철저히 이뤄진다. 신극재 교무부장교사는 “2학년 때 아이들이 직무체험을 하고 오면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더불어 기업체에는 대전여상 학생들이 일을 잘한다는 홍보도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라고 했다.

학교는 3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진 회계, 컴퓨터 관련 실무능력과 학생회, 동아리 등 다양한 교내 활동 경험, 그리고 교사들의 열정과 희생정신을 높은 취업률의 비결로 꼽았다. 특히 특성화운영부, 취업지원부 교사들은 좋은 취업처를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 관리까지 도맡는다. 취업지원부장을 맡은 홍정훈 교사는 “매월 1회씩 취업한 학생들의 회사로 추수지도를 나간다. 전화와 메시지도 수시로 주고받으며 힘든 점은 없는지 상담한다. 이렇게 철저한 관리로 취업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성적이 중하위권인 3학년 학생들은 산학맞춤반을 통해 취업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회계, 세무, 유통 과정을 만들고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과정별 실무교육과 장에절교육 등을 제공한다. 산학맞춤반은 방과 후나 주말을 활용해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한다. 취업이 어렵거나 의지가 약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집중함으로써 학교는 좋은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 전체 취업률도 올리는 효과를 얻었다.

중하위권 학생 위해 취업 맞춤형 교육

대전여상 학생들은 기본 2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전공동아리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이상의 심화학습이 이뤄지며 고급자격증 취득, 대외활동 참가를 대비한다. 공부 이외에 취미와 봉사활동을 위한 자율동아리도 30여 개에 달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지난해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에서 최우수학교로도 선정된 대전여상은 특히 밴드, 난타, 오케스트라 등 음악 관련 동아리를

5 대전여상은 선후배 간 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애교심 넘치는 동문들은 졸업 후에도 후배들을 위해 학교 행사에도 발 벗고 나선다. (코로나19 이전 촬영)

6 조중택 교장은 학생들에게 인사와 시간 엄수, 단정한 복장을 가장 강조한다. 학교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이유에서다.



여러 개 운영한다. 학교는 대전시교육청 악기지원사업을 통해 바이올린 30대를 교육청으로부터 대여하고 있다. 조중택 교장은 “모든 동아리는 무료로 운영돼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1948년 개교한 대전여상은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작년에 신축된 창의관에는 내년에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상업경진대회와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대형 강의실과 IT실습실을 넉넉하게 추가했다. 덕분에 교내 실습실은 총 21개로 늘어났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중택 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꼬집었다. “직업교육은 이류’라는 사회적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특성화고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력을 기르는 교육기관이에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하죠. 이를 통해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교육에 만 전념하는 환경이 되고, 취업은 정부와 지역고용센터 등 사회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와중에 대전여상은 지난 1학기 학생들을 최대한 등교시키기 위해 1, 2학년 학생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교차 등교를 시켰다. 실습과목이 많아 원격수업이 어렵고, 맞벌이 가정 이 많아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덕분에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었다. 조중택 교장은 “2학기에도 교차 등교를 진행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며 교내 행사도 조심스럽게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은 물론이고, 예체능 활동 등 기본소양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취업률로 회복해 80% 이상을 바라본다.”라고 밝혔다. 2

Mini Talk



대전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인 홍진아·김보람·박영비·김해진 학생은 최근 취업에 성공해 직장인이 됐다. 또래 친구들보다 빨리 취업하고 싶어 특성화고에 진학했다는 이들은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도 특성화고를 선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진아·김보람 학생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일반사무직으로 함께 일하게 됐다. 홍진아 학생은 취업 후 야간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꿈도 내비쳤다. 그는 “아직 진로를 못 정했다면 특성화고에 와서 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 학교 공부를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 곳에서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보람 학생은 특성화고의 장점으로 “또래보다 먼저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대학은 나중에 공부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진학할 수 있다.”라고 했다. 통신모듈 부품 제조업체에 취업한 박영비 학생은 “학교에서 모두 함께 취업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다. 1학년 때부터 전문적인 기술과 직장에절도 익힐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김해진 학생은 회계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는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특성화고에 오면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다 같이 출발선에서 서는 것과 같다.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보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대건고 벤처동아리 3D공작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학생 창업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이제 막 2학기 개학을 한 학생들의 동아리실에는 소셜임팩트(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나누기 위한 활동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에어컨 방역복이었다. 소셜임팩트를 통해 4차 산업을 열어가는 대구 대건고(교장 박규장) 학생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_곽우은 대구보건고등학교 교사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3D프린터에 융합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제품과 기술을 무료로 보급하는 3D공작소 학생들

3D 공작소

학교 폐품 창고에서 미래 창업가가 자란다

3D공작소(지도교사 박종필)의 3D는 Development(문제 찾기와 해결이론 탐색 활동), Design(문제해결을 위한 예술적인 기술 개발 활동), Dedication(헌신적인 나눔실천을 통한 성장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설계 디자인 및 제품개발을 통해 소셜임팩트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D공작소는 2015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3D프린터 뿐만 아니라 일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며 레이저커팅, 3D모델링, 업사이클링, 도시재생건축, AI자율자동차 등 다양한 공작 기법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적정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동아리는 3D프린터로 총을 자체 제작한 외국 학생의

사례에서 출발했다. 3D프린터라는 생소한 기계에 호기심 가득했던 학생들과 박종필 교사에게 3D프린터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학생들은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3D프린터에 융합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제품과 기술을 무료로 보급하는 동아리로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으고, 폐품으로 가득 쌓인 학교 지하실 창고를 치우고 그곳에 3D공작소 문을 열었다.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모두 새로운 도전 앞에 열정적이었다. 미술교사인 박종필 교사는 3D프린터 도입 초창기 시절 작동법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대전에 있는 3D프린터 공장에 1박 2일간 머물며 기계 작동법과 3D프린터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 등을 배웠다. 그리고 과학·공학도 출신의 수학교사와 영어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영어원서들을 동아리 학생과 함께 공부해 나갔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병따개, 책갈피 등 비교적 간단한 물건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1년 만에 드론, RC카, 로봇 의수까지 제작할 수 있었다. 2년 차부터는 직접 3D프린터를 제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지금은 독자적인 메이커 스페이스(대건INNO-FAB/5개실) 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도구로 상상하는 모든 제품을 직접 설계,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달서구 과학동아리 연합 ‘DAS(Dalseo Advanced Science)’의 과학 축제 부스운영을 시작으로 대구시 주최 과학대축전 짝잔치, 신나는 발명 체험 한마당, 상상나라 발명 솜씨 한마당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해 3D프린터의 각종 기술을 전시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의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교내대회는 물론이고 전국대회,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6 대한민국 청소년과학탐구반 활동 공모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생활폐품을 활용한 정크아트와 3D프린터를 융합한 탐구 활동을 발표해 전국대회

대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받았다. 2017년 5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였으며, 대한민국 인재상을 연이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첨단기술 익혀 소외계층에 나눔 실천

3D공작소 학생들은 동아리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고민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의수를 제작하고 청각장애인용 스피커와 보청에 도움을 주는 신호등 등도 자체 개발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복지관을 찾아 아이들에게 3D모델링과 3D프린터 활용법을 재능기부 해오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3D모델링은 커녕 기본 학습능력을 키우기에 바빴던 복지관 학생들을 찾아가 첨단기술을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생활폐품을 활용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한 3D프린터를 복지관에 무료로 보급하였다. ‘첨단기술을 익혀서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자!’라는 목표로 학생들의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발명과 나눔의 열기는 뜨거웠다. 최근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D공작소의 사회적 가치실현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 지난해 에어컨 방역복을 개발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컵 모양의 저렴한 PC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원격수업을 지원하였다.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학생용 칸막이를 디자인하고 개발·양산·설치까지 완료하였다. 학생용 칸막이는 전국에서 주문받아 판매하였는데, 이때 발생한 수익금으로 아프리카에 코로나19 방역용품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박종필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변화에 민감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이면서도 작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줄 아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작은 실패 가운데 기회를 찾고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1 박종필 지도교사가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한 정크 3D프린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 개발한 에어컨 방역복



Mini Talk



차혁찬 3학년

물리와 공학에 관심이 많아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재활기구를 주로 개발하였고,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껴요.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공부하여 그분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양연웅 3학년

기계공학을 통한 소셜임팩트에 관심이 많아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폭염에 코로나 방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냉방 방역복을 개발했죠. 참 뿌듯했고 기뻐요. 저는 주위 사람들을 돕는 마음 따뜻한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발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싶어요.



박진수 2학년

4차 산업에 소외된 학생들의 3D 체험을 도울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3D를 활용해 팔이 불편하신 분들의 의수를 직접 만들었는데, 나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수족을 직접 만들어 치료해 드리는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배운 것을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 가고 싶습니다.



신도엽 2학년

저는 사람의 행동을 공학과 연결지어 이를 연구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시간에 어르신들의 걸음걸이를 통해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건강벨트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피커 개발 활동이 저의 진로설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발달장애아와 박에스더선생님의 음악세계
**숫자 게이름·손기호로
 음악을 배운다**

박
 에
 스
 더

홀트학교
 교사



경기도 고양시 홀트학교 박에스더 교사의 교직은 2008년 인도네시아의 전통악기 앙클롱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특수교육 교사로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음악지도법을 새로 개발했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에스더 숫자지휘법’도 새로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2015년 올해의 스승상에 이어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 특수교육 부문상을 수상한 그를 만났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햇빛과 물, 바람이 키워내고, 그 자연의 소리를 담아낸 ‘대나무종’ 앙클롱(Angklung). 경기도 고양시 홀트학교(교장 김봉환) 박에스더 교사는 2008년, 이 대나무 악기와 운명처럼 처음 만났다. 자연의 질감 그대로를 구현해 놓은 투박한 외양의 타악기, 그러나 그 속에서 공명하는 떨림은 그 어떤 악기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청아한 소리를 품고 있다.

“이 인도네시아 전통악기를 처음 접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유럽에서는 음악치료용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 이 악기를 들이자마자 처음으로 초등부 학급 발달장애 학생들의 음악수업에 바로 적용했죠. 연주법이 특별히 어렵지 않다 보니, 장애가 있는 저학년 아이들도 곧잘 따라와 주었죠.”

이 시기, 홀트학교에는 박 교사의 지휘 아래 앙클롱 음악동아리가 생겨났다. 이어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의 예술교육 재능기부자들까지 속속 합류하면서 2012년 4월 이곳에는 ‘에그리나 오케스트라’(에그리나는 순우리말로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가 새로 창단됐다.

“비장애인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바이올린, 첼로를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 오케스트라 단원 오디션을 하면서도 일부 학부모님 중에는 창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어요.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우리 아이들도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또 지도했죠.”

홀트학교 아이들의 꿈꾸는 시간

지난 10년, 박 교사의 삶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한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시간이 비록 더디게 흐르더라도, 기다려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이들이 꿈꾸는 순간은 기적처럼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난 10여 년의 시간이었던다. 따라서 그동안 비록 작은 무대일지라도 지역사회에서 공연요청이 오면, 늘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았던 박 교사였다.

“2014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의 협연은 저로서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앙클롱은 특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때 특별한 감동을 주는, 마음을 울리는 악기거든요. 그날 다운증후군이었던 초등부 1학년 민이(가명)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뛰어난 연주 솜씨로 객석의 청중들을 놀라게 했죠.”

그 이듬해인 2015년 12월, KBS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공개방송에서도 박 교사는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맞았었다.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정확한 음을 콕 짚어 소리를 내던 정민(가명)이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3년 전 8월, 에그리나 오케스트라는 역사적인 기쁨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 홀트학교 국악부 학생들과 협연으로 독도에서 음악회를 연 날이었다.

66

숫자악보를 적용하면서 학생들이 보기에 편하고 연주하기도 한층 쉬워졌다.

99

박 교사의 총연출로 열린 이 독도음악회에서 홀트 학교 아이들은 ‘홀로 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하나된 열정’ 등을 연주하며 잃었던 이 땅의 역사, 광복 73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오케스트라 단원 아이들에게 종종 어떤 공연이 가장 좋았는지 물어보면, 양로원의 할머니들 앞에서 연주했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말하곤 해요. 무대는 언제나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이기도 해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놀이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선 악보의 장벽을 넘은, 숫자악보

학창시절, 박 교사는 음악대학에 진학하여 피아노 전공을 꿈꾸었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중 청각 장애인의 애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특수교육학 전공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2008년, 박 교사는 음악동아리 앙클롱반을 지도하면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음악 지도법

연구에 더욱 매진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숫자악보’다. ‘도, 레, 미, 파, 솔, 라...’ 대신에 ‘1, 2, 3, 4, 5, 6...’처럼 숫자로 계이름을 표기하는 것이다.

“오케스트라가 창단되고 바이올린, 첼로 등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선생님들도 가장 힘겨워했던 부분이 학생들이 오선 악보 읽기를 어려워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학생들이 보기에 편하고, 연주하기도 한층 더 쉬워진 숫자악보를 적용하면서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때 박 교사는 초등부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곡들을 숫자악보로 일일이 변환하는 작업에 매달렸고, 이 곡들은 후에 <숫자 악보집>으로 발간됐다. 박 교사는 또 ‘에스더 숫자지휘’법도 구안하여 현재 오케스트라 지휘에 활용하고 있다. 이 또한 발달장애 학생들이 악기를 좀 더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숫자 손기호’로 숫자악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박 교사는 2017년 이 ‘에스더 숫자지휘’법의 특허출원을 마쳤다.

이러한 음악 지도법은 박 교사가 2013년 특수교육 부문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면서 초등부 3~4학년 음악 교과서에도 수록됐다. 박 교사는 또 2015 개정교육과정 음악과 시안 연구진으로도 활동했다. 2019년에는 그동안의 음악교육 연구 활동을 엮어 <숫자악보와 숫자지휘를 적용한 발달장애학생 음악교육의 실제>라는 책으로 출간해 세상에 선보였다.

음악, 마음을 일으켜주는 고마운 친구 같은 존재

박에스더 교사는 지난 5월에 진행된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에서 특수교육 부문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2015년 ‘올해의 스승상’에 이은 수상의 영예였다. 박 교사는 “이 수상만큼은 홀트학교에서 문화예술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 외부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예술강사, 그리고



1 숫자악보와 숫자지휘를 적용한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지도서
2 자연의 소리를 담아낸 대나무종 앙클롱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해오고 있는 박에스더 교사. 앙클롱 연주법이 어렵지 않아 장애가 있는 저학년 아이들도 곧잘 따라한다.

재능기부자들도 함께 받아야 하는 귀한 상”이라면서 이를 몇 번이고 강조했다.

“에그리나 오케스트라는 안타깝게도 지난해 함께 모여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일 년에 최소 20여 곡 이상 합주를 해왔었는데,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죠. 올해 2학기부터는 오케스트라 합주실 공간에 가림막 설치 등 리모델링을 단행해서 아이들의 합주 연습시간을 좀 더 확보해 나갈 계획이에요. 또 학기 중에는 교실 인원의 재배치 등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방과 후 수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음악은 넘어진 마음을 일으켜주는 고마운 친구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박에스더 교사. 그를 매료시켰던, 자연의 소리를 품은 악기 앙클롱, 또 지난 10여 년을 바쁘게 달려온 에그리나 오케스트라와 함께, 홀트학교 아이들에게 이 소중한 아름다운 음악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보듬고, 나누어줄 계획이란다. ㉠



2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온라인 기초학력 교실

글_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처음으로 한국말을 못 하는 신입생을 만났다

내가 근무한 학교는 인천시에 있는 평범한 학교였다. 그해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되었다. 2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은 매우 바쁘다. 입학식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3월 2일 입학식 날, 작고 귀여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이 학교 강당으로 들어왔다. 이윽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른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아이들은 쪼르륵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자기 반으로 간다. 그런데 옆 반 선생님은 학생 한 명이 오지 않았다고 찾고 있다. 혹시나 하고 나도 우리 반을 확인했다. 바로 그때 한 어머니가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인 억양으로 “우리 아이 몇 반?”이라고 계속 나에게 물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찾던 영선(가명)이었다. 영선이는 커다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말을 못 하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만났다.

그 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글은 생존 수단이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영선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지난해 14만 7천 명을 기록했다. 전체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은 2014년 1.8%에서 2020년 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결혼하는 10쌍 중에서 1쌍은 국제 결혼이라고 한다. 앞으로 영선이와 같은 학생이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우선 영선이에게 한국말과 한글을 방과 후까지 거의 매일 가르쳤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학년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다. 학생들이 있을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하다. 수업 후에는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과 같은 굵직한 업무를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도 매일 열심히 가르쳤다. 영선이가 한국말과 한글을 모르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영선이에게 한국어와 한글은 어쩌면 학교에서의 생존수단이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영선이는 한국말과 한글을 어렵게, 그리고 용감히 배워갔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66

한국말을 못 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

99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위한 문해교육 시작

올해 5월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지역센터에 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회복지사의 호소를 들었다. 알고 보니 기아대책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36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좋은교사운동과 기아대책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외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온라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다. 좋은교사운동에서는 배움찬찬이연구회가 이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기아대책은 다문화 가정 비율이 높은 기관 3곳을 선정했다. 경기도 안산, 울산 그리고 포항에 있는 기관이었다. 우선 70여 명 학생의 읽기, 쓰기를 진단한 후 결과를 분석해 정리했다. 예상한 것보다 잘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 2학년 아이들 대부분이 사실상 한글 이해득인 기관도 있었다. 진단 결과를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온라인 한글 문해교육 수업을 시작한 아이들도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수준별 소그룹을 나누어 편성했다.

온라인 비대면,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첫날, 모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두근두근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잘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안산, 울산, 포항에 있는 아이들이 동시에 '쏘옥~쑹' 화면에 얼굴을 보이며 웃었다. 정말 신기했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함께 고생했던 시스템 개발자들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온라인 기초학력 교실이 시작되었다.

이제 여름 방학이 거의 지나간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놀라운 점은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생각보다 잘 적응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하는 난독증 아동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물론 만나서 수업을 하면 더 좋겠지만, 온라인 수업의 장점도 많다. 그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아이들이 더 집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사는 곳에 제한받지 않는 교실'을 만들 수 있다. 온라인 기초학력 교실의 시스템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동영상 수업 그리고 출석 체크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스타트업 '퓨처스쿨레'와 '다양한학습자를위한'이라는 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특별히 초등학교도 쉽게 로그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의 초등학생이란 것

현재 학교에서 가장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국말과 한글이 어려운 외국인 가정과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다. 나는 한국말과 한글을 전혀 모르는 영선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말과 문자만 낮은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와 떨어져 수년간 중국에 혼자 남겨져 있다가 이제야 처음 한국에 온 아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 자신만 겨우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아이, 6학년이지만 필리핀에서 태어나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 등.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지만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의 초등학생이라는 것이다. ⑤



-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참여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7월에 시작하여 9월까지 총 22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운영되는 여름 방학 프로그램은 8월에 2주간 진행된다.
- 진단 도구는 한국어읽기검사(KOLRA), 한글해득수준진단도구, 강원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읽기 유창성 진단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필요하면 녹음도 하여 더 정교하게 평가한다. 진단은 사전진단, 진단도 평가, 사후평가로 나누어진다.
- 학급 구성은 일대일과 소그룹으로 구성된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개별화 교육, 한국어교실, 한글교실1~2, 읽기유창성 1~2 등 크게 4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재는 배움찬찬이연구회 선생님들이 함께 저자로 참여한 교재를 주로 사용한다. 개별화 교육은 <읽기 자신감>(좋은교사, 2014) 교재를 재구성한다. 외국인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실에서는 학생 수준에 맞는 읽기, 쓰기 교재를 사용한다. 한글교실은 <찬찬한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을, 읽기 유창성은 <따스함>(템북, 2020) 보편과 여름편을 주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 매주 금요일은 교사 모임과 학생의 진단도를 확인하는 슈퍼비전이 진행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선생님과 학습클리닉 전문가도 함께하고 있다.

온라인 기초학력 교실 인터넷 주소: <https://onlinebasic.kr>

열아홉, 당당한 직장인을 희망합니다

청년층 중에서도 고졸자의 고용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졸 구직자들이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여기서는 고졸 구직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신산업 분야로의 학과 재구조화를 비롯하여 지역협업 기반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그리고 도제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고졸 취업자에 대한 우대정책과 현장성 있는 고졸인재 양성방안을 소개한다.

- 21 더 큰 긍정의 에너지로 끌어당김이 통하는 취업문화를 열자!
- 24 직업계고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 추진
- 26 열아홉,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를 경험하다
- 28 직업계고 학생 지역밀착형 고숙련자로 키운다
- 32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더 큰 긍정의 에너지로 끌어당김이 통하는 취업문화를 열자!

글_ 김선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청년들이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으로 접근하는 '직업계고'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며 우리의 열아홉 청춘은 이 시대를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 원해도 그것을 제대로 얻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쓴다.

'청년'과 '청춘'은 희망을 상징하며 미래 공동체를 이끌 주체로 구성된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근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시대 청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고통 견뎌야 강요당하며 나약한 세대로 '구별 짓기' 당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기 위한 20대의 고군분투는 이미 매일 저녁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대졸자들의 취업만이 사회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 텐데 유독 대졸자 취업 문제만이 사회적 문제인 양 인식하고 있다. 청춘 예찬도 20대 대졸자들에 대한 예찬이며 고통을 강요하는 것 또한 20대 대졸자들에 대한 강요임을 우린 알고 있다. 세대를 구별 지어 '요즘 아이들은 나약해'에 속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20대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린 '취준생', '공시생'의 이름을 붙이며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개인과 구별 짓는다.

세대를 가르는 말 속에 담긴 사회학적 의미를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 세대 가르기가 시작된 이유는 이미 외국 사례를 통해 기득권과의 차이 만들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 가르기 속에서도 배제된 '우리 아이들'. 그들이 바로 직업계고를 졸업한, 혹은 직업계고를 선택해 교육을 받는 직업계고 출신의 아이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청춘 예찬에도 청춘의 고통 견뎌도 속하지 못하는 청춘이지만, 청춘이 아닌 그들은 세대론에서도 배제되었으며 '취준생', '공시생' 등으로 이름 붙이며 차이를 만드는 사회에서도 배제되었다.

사회문제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직업계고 청춘들의 고용과 취업의 문제는 단순 정부 정책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도 직업계고 출신을 청춘으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인정하면 할수록 정부 정책은 더욱 청춘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직업계고'를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에



머물게 된다. 직업계고 고졸자들의 취업을 노동권이라는 공동체 속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로 인식하는 순간 직업계고 고졸자들의 취업 문제는 해결 불가능의 문제로 남게 된다.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산업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했으며 국가 혹은 지역 간의 차이로 그 시기가 달랐을 뿐이다. 하지만 동시대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산업 변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점을 맞아 그 변화의 의미가 더욱 부각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변하는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양성을 외치며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지만, 동시대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인력양성을 위한 필요역량에 집중하여 교육하고 있지만, 졸업을 하는 순간 그 역량은 이미 지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 되어버린다.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빠른 산업구조 변화와 요구 역량 변화를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든 노동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면 어떤 유형의 인력도 변화된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인력을 길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다양한 노동시장과 노동 인력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노동과 산업구조의 갈등 및 소외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문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만 몰두하다 보니 고학력을 요구하는 인력양성에만 관심을 가질 뿐 변하지 않는 산업과 요구 인력 및 역량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하며 배제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시장이 요구하는 노동 인력과의 불일치 문제를 거론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문제는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과 함께 개인의 노동권 보장을 연계한 권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는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인식변화 없이 20대 대졸자 취준생과 20대 고졸자 취준생의 간격은 절대로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대졸자와 고졸자에 대한 인식 차이는 노동 종류와 노동 강도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며 청년 예찬과 청년 고통 감내 또한 마찬가지다.

열아홉은 대학을 선택할 수도,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년은 불확실해서 위태롭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토대 위에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는 공동체 모두의 인식변화와 함께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직업계고 취업문화 구축방안 제안

필자는 마지막으로 교육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직업계고의 취업문화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직업교육 경로의 다양화와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이것은 현 도제 제도를 보다 산업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숙련기술인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취업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직업지표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본적인 지표인 보상, 일자리 수요, 고용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여건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응용지표인 일-가정 균형, 코로나19 등 뉴노멀시대에 맞는 비대면 근무형태와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는 기업인사관리(승진) 제도 및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제도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학력 간 임금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다섯째,** 현재 교육부 중심의 취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 기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직업계고 학생의 성장경로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최근 직업계고 및 고졸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고, 구조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직업계고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실습, 취업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예비진학자인 Z세대(중3)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내의 13개 학회 및 단체가 발의하였지만 몇 년째 법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가칭 ‘직업교육진흥법’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직업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이며, 모두 연결되어 있고, 떨림과 진동으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우리 청년들이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들이 긍정의 에너지로 진동하여, 미래의 희망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에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진실의 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사회 환경 시스템에 강한 에너지를 공급·지원함으로써 끌어당김의 진동 주파수를 최대한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②

직업계고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 추진

글_ 변숙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020년 대학진학률은 78.9%로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했다. 우리 사회는 대학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과잉학력, 일자리의 구조적 미스매치 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교육부, 2017).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진학뿐만이 아닌 고등학교만 졸업하여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졸 성공 사회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¹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추진 주요 내용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산업수요 대비 고졸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매년 100개 내외의 학과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의 재구조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전공 교원과 시설·기자재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직업계고 및 학과개편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의 학과개편 신청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추진 필요성/성공 가능성/절차적 타당성에 기반한 선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2021년에도 148개 학과개편이 선정되었다.

¹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고졸인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16.4.25.)으로 시작됨. 이후,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노동시장 급변, 4차 산업혁명 전개 등 직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부터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직업계고 학교 및 학과 개편을 통해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이 재설정됨.

[표1] 직업계고 학교 및 학과개편 현황

구분	신청학과	선정학과	선정률
2016	218개	157개	72.0%
2017	283개	126개	44.5%
2018	193개	98개	50.7%
2019	176개	125개	71.0%
2020	222개	153개	68.9%
2021	220개	148개	67.3%

미래유망산업과 서비스 산업 관련 학과개편의 확대

선정 결과, 동일 교과군 내에서의 교육과정 고도화가 대부분(69.3%)이었지만, 경영금융 교과군만은 타 교과군인 디자인·문화콘텐츠 교과군과 미용·관광·레저 교과군으로 학과개편 사례가 다수였다. 기존 상업계열 직업교육이 관련 산업 분야의 다변화에 따라 학과개편이 보다 폭넓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인공지능, 초고속통신망 등 4차 산업 관련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신산업 분야의 생성으로 기존 직무 내 용도 변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의 교육 수요도 다변화되고,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의 학과개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AR·VR,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반려동물, 제과·제빵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과 학생들의 수요에 기반한 미래유망산업 및 서비스 산업 관련 학과로의 개편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컴퓨팅과', '바이오코스메틱과', '그린스마트팜과', '미래자동차부품가공과', '스마트팩토리과', '반려동물케어과', '소방안전과' 등이 그 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데 있으며, 교육부는 신산업·유망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여 기초 기술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²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과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변화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³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의 학과개편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춘 미래유망산업 분야의 기초기술 인재양 성과 학생 수요에 부응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계고의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유망분야 고졸 일자리 발굴과 적합성의 충분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 해당 분야 맞춤형 교육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 양성, 현장기반의 충실한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확보 등 계속적 예산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 시도의 요청에 의해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집중컨설팅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19.1. 관계부처 합동)에 의거 2022년까지 매년 100개 이상의 학과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학과개편을 통해 고교 졸업만으로도 상당한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졸 성공 사회를 기대한다. ^②

² 교육부 보도자료. 2021.8.2.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직업계고에서 길러낸다."

³ news 1. 2021. 8.11. "충북 직업계고의 변신. 내년 1개교 교명 변경, 4개교 학과개편"

[표2]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학과개편 현황

교과군	선정학과 교과군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 문화 콘텐츠	미용 관광 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 의류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식품 가공	인쇄 출판 공예	환경 안전	농림 수산 해양	선정 학과 (계)
계	8	1	17	11	6	10	32	2	6	1	25	10	4	-	1	14	148
경영금융	8		11	4	1				1		2					4	31
보건복지		-	1														1
디자인문화 콘텐츠			3		1												4
미용관광레저				4	3												7
음식조리					1												1
건설			1	1		8											10
기계				1		1	31								1		34
재료								1									1
화학공업									5				1				6
섬유의류										1							1
전기전자				1							22	1					24
정보통신			1								1	5					7
식품가공													-				-
인쇄출판공예														-			-
환경안전															-		-
농림수산해양							1						2			10	13
복수교과군 연계								1					1				2
(보통과)	1																1
학급증설											1	1					2
학교유형전환							1				1	1					3

※ [참고1] 부분은 동일 교과군 내 교육과정 개편을 의미
 [참고2] 복수교과군 연계는 서로 다른 교과군의 2개 학과를 새로운 학과로 개편한 사례를 의미

학교에서 세무이론, 기업에서 세무실기 배워

열아홉,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를 경험하다

글_김예은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세무도제반) 3학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계획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세무사와 회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을 때도 제 적성과 잘 맞을 것 같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중3 시절, 진로를 고민하던 중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에 대해 알게 됐고, 특히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도제교육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제학교를 다니며 동시에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남들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정규직으로 취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제학교 이후에는 P-TECH(피텍)이라는 고속련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해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학업도 가능합니다. 도제학교처럼 기업에서 학생의 멘토가 되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 실무 경력을 쌓음과 동시에 전문대학 졸업장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에 입학해 세무도제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무도제반에서 2년간의 생활

세무도제반은 학교 선생님들 외에도 세무사 혹은 세무·회계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업적성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가 어느 분야에 강한지,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

'세무·회계 분야 사무원'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기에 세무사님을 초청하여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정받는 세무·회계 분야 사무원이 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그 외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꿈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도제반 친구들과 과는 제주도로 함께 체험학습 겸 역량 강화 연수를 다녀오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도제교육을 함께 받으며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기에 힘든 시기가 와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냥 쉬운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험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재도전에서도 떨어졌을 때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에는 '세무에 대한 길이 나에게 맞을까'라는 생각과 자격증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무도제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강사님은 방과 후에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알려주었고 기초가 부족했던 저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 높은 벽처럼 느껴지던 자격증을 취득하고 슬럼프로부터 헤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경험한 후에 회계·세무에 대한 자신감과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 1 세무도제학교 제주도 현장체험 및 역량강화 연수
- 2 P-TECH 대학탐방 전공 멘토링
- 3 기업 세무실습 중인 김예은 학생



학교에서는 세무와 관련된 이론교육과 기업에서 어떤 일을 배우는지 미리 익히며 기본적인 직장예절 교육을 배웠습니다. 기업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를 출근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무를 익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신고 기간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와 직접 신고하는 방법, 거래처의 카드 매입·매출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 세무프로그램 사용법 등 다양한 업무를 익혔습니다. 기업 담당 선생님은 바로 제 옆자리에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회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초짜 사회인, 실수해도 다시 해보겠다는 용기

기업을 다니며 경험하고 배운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날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를 했는데, 당황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리님은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알고 그 일을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상사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자신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당시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을 보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잘 모르는 부분은 여쭙보아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에 계신 세무사님이 알려준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고, 행동을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행동을 좋은 습관으로 기르게 된다면 좋은 일이 온다는 뜻으로, 이 말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결과 항상 생각만 하고 게으름을 피웠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주위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마음속의 그릇도 조금 더 자라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새겨듣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어른들인 고객응대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지만, 직원분들이 응대법 등을 다양하게 알려줘 지금은 어려움 없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으로 무장한 나를 응원하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간의 도제교육은 학교 생활과 회사생활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세무지식과 실무능력을 키웠으며 다양한 자격증에 도전하여 취득하는 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그동안 도제교육을 받던 기업에 정식 출근할 예정입니다. 현재 목표는 기업의 강남례 세무사님,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무·회계 분야 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취업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②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직업계고 학생 지역밀착형 고숙련자로 키운다

글_이순이 편집장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직업계고-지역기업(선취업)-지역대학(후학습)으로 이어지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본격 운항을 시작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프라를 총망라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공모에 부산시(지능형 제조, 글로벌관광, 금융경제정보, 라이프케어 분야), 인천시(항공기수리·정비·개조, 바이오 분야), 대구시(지능형 공장 분야), 경남 사천·진주·고성(항공산업 분야), 충남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자동차부품 분야)을 선정하였으며, 각 혁신지구에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에 혁신지구로 선정된 해당 교육청과 지자체는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직업교육 혁신지구 'I-Job 에듀클러스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여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항공MRO(항공 수리·정비·개조) 기초

1 지난 4월 12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출범식을 개최, 고졸 인재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였다.
2 인천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항공MRO 현장실습

교육과 기업특화 NCS 학점제 기반의 정규교과 교육이 이뤄졌다. 기업특화 NCS 교육과정은 공항시설 이용에서부터 항공기 유도 및 견인, 계측장비 사용법, 정비 매뉴얼, 항공기 판금 작업과 수리작업 등 항공기 수리·정비·개조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강의와 현장실습 형태로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항공MRO 교육에 인천 직업계고인 부평공고, 인천기계공고, 인천산업정보학교, 인천소방고, 인천정보과학고, 정석항공과학고 3학년생들이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이창은 부평공고(그린자동차과 3학년) 학생은 “항공정비에 쓰는 공구와 항공 관련 영어, 정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항공MRO 교육을 통해 항공기에 대한 기초·기본지식을 익히는 시간으로 삼고 싶다.”라고 말한다.

학점제와 연계한 기업특화 교육은 NCS 교육체계에 따라 3등급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은 항공기 정비현장에서 기초적인 정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항공MRO 참여기업에서 4~8주간의 기업특화 고교생 인턴십 과정과 서류심사, 면접을 거친 후 취업이 확정되면 항공정비사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후 재직자 대상의 특수교육과정(후학습)과 연계하여 고급정비사로서의 역량을 기르게 된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항공MRO 분야 고졸 인재를 연간 50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대단위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준비 중이며 근거리에는 남동공단과 시화공단이 있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는 이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은 항공MRO 분야 외에도 바이오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어 새로운 경제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은 바이오 인력양성사업(K-NIBRT)을 유치하고 있으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바이오산업 특화인력 집중양성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즉 직업계고 학생 선발 → 바이오공정 학점 이수 → 취업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지역 바이오 인재 정착 로드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천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인천산학융합원 내에 'I-Job 에듀클러스터지원센터'를 구축,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전담인력을 확충하였다. 에듀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15개 직업계고와 지역기업(인천공항공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지역대학(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인천), 한국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인천산학융합원,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협력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곳에서 혁신지구 사업 심의, 자문을 비롯하여 중장기 인력양성로드맵, 고졸 채용, 후학습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고상현(창의인재교육과) 장학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신 직업교육 모델로 직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기업-유관기관의 상생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2021년 항공MRO 및 바이오 분야 에듀클러스터 구축·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뷰티 및 소방산업 분야 에듀클러스터, 2023년도 관광리조트, 스마트팩토리 산업 분야로 에듀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계고-지역기업(선취업)-기업대학(후진학)

연계 직업교육

부산 직업교육 혁신지구(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는 지역 전략산업인 스마트제조, 글로벌관광, 금융경영 정보, 라이프케어 4대 핵심분야를 벨트로 조성해 직업계고-지역대학-지역기업(현장실습 및 취업)이 연계되는 선취업·후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밀착형 고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혁신지구는 올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장과 만나 설명회 겸 협의회를 가졌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관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최근 부산지역의 호텔, 리조트 인사 담당자와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시교육청 최규식(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는

MINI INTERVIEW



정승진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장

Q.1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지구에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역할은?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에서는 인천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를 위해 항공MRO 산업 분야의 사다리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전공자와 전공자가 항공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직무로드맵을 제시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고교단계부터 재직 이후까지 평생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Q.2 현장실습을 맡은 실무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항공정비 특성상 남학생 참여비율이 높고 고교생이다 보니 채용연계 이후 1~2년 이내 군대 입대로 인한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교생 인력 채용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관계자와 만나다 보면 기업에서는 꾸준히 일할 인재를 원하는 반면, 고교생은 군대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고교생 채용연계에 대한 어려움과 해결책에 대해 기업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군입대하는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휴직 후 복직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주고 있다.

Q.3 항공MRO 산업에 대한 인천의 지리적 이점과 향후 전망은?

항공MRO 산업 분야는 승객 및 화물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항공기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정비산업으로 국내 항공기 및 전 세계에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이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대단위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준비 중이며 근거리에는 남동공단과 시화공단이 있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는 이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Q.4 항공교육 담당자로서 관계 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에서는 업무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형 인턴십을 자체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항공정비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양성을 해오고 있으며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채용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항공정비 분야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교생 채용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국가 혜택을 받아 고숙련자로 가기 위한 후학습(대학교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학 집적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 대학이 평생교육 측면에서 재직자를 위한 직업 전문교육기관으로의 변화를 통해 지역밀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에 지역사회, 지역대학 모두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구 직업교육 혁신지구(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는 4차 산업시대 성장단계별 경력개발 지원을 통한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협력하여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우수 기업에 취업을 연계한다.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지역대학, 기업과 협력해 급속 및 병영, 다양한 후학습 등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과정을 지원하고 학위 취득 후에는 재직기업에서 직무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대구 혁신지구는 4차 산업에 관심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체험과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교육과 스마트팩토리 기초, 실무,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고졸 취업자의 진로경력을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남 사천·진주·고성은 국내 항공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기업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 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충남 천안시와 충남교육청은 3대 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 3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 항공MRO 교육
- 4 인천 바이오 관련 현장실습
- 5 경남 항공기계 조립 실습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글_ 정아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서기관

66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괜찮은 일자리와
후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99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 획일적인 경로를 벗어나 청년에게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고졸 취업자 지원 강화'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삼아,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1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현장실습 지원금도 신설하였다. 2017년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도입 이후 다소 주춤했던 현장실습 참여율도 2018년 22.5%에서 2020년 31.2%로 상승하였고, 참여 학생의 만족도도 2016년 4.3점에서 2020년 4.72점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직업계고에도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닥쳤다. 지난해 고교생들의 평균 등교일수는 104일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실습수업이 중요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특히 타격이 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전문교과의 원격교육 학습 자료를 함께 개발·공유하고, 현장실습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생들은 실습 참여 기회 부족으로 인해 취업 역량을 기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교사, 기업 등 직업교육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 성과 점검 및 보완 방안'을 지난 7월에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은 △학생의 역량을 높여 취업 준비 지원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지원 확대 △취업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기술 등장과 산업변화에 발맞춰 직업교육 혁신과 학생 역량 강화 지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 탄소 중립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의 내용과 수준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신산업·유망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공부하고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 소양으로서 인공지능과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202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2년 3만 개까지 확대하고,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금리 우대·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자 한다. 내년부터는 기업에서 직접 실습이 어려운 직종과 신산업 중심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후 채용 지원과 기업 적응까지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감염병 상황으로 실무역량 함양과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 등 2만 4천 명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취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1 2 3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은 실습 참여 기회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취업 역량을 기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내실습



특별기획⑤ -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관찰은 일자리를 만들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고졸 인재가 진출할 수 있는 관찰은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공공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채용을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기술직뿐만 아니라 행정직에서도 직업계고 졸업생의 채용이 가능해지며,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수산계 졸업생을 순경으로 채용한다. 공공기관에 더해 지방공기업에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고졸 적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학생들이 적재적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고졸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2021년까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당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채용특별장려금’ 중 25%를 고졸자 주 취업연령대인 만 18-23세의 청년 채용 시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졸자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9월 중으로 ‘고졸 취업 우수기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참 관찰은 중소기업’ DB, 잡코리아·워크넷 등의 고졸 채용 정보, 기업 현황 등 유관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여 취업 희망자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소한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 취업지원센터, 학교 취업지원관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빈틈없이 촘촘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그간 졸업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교육부는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7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졸업생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미취업자에 대해서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직업훈련·일자리 상담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미취업 졸업생을 직업계고등학교에 교내 실습 보조 강사로 채용하여 재학생 멘토링과 사회진출 준비를 도울 계획이다.

45 교육부는 고졸 인재가 진출할 수 있는 관찰은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자료사진=2019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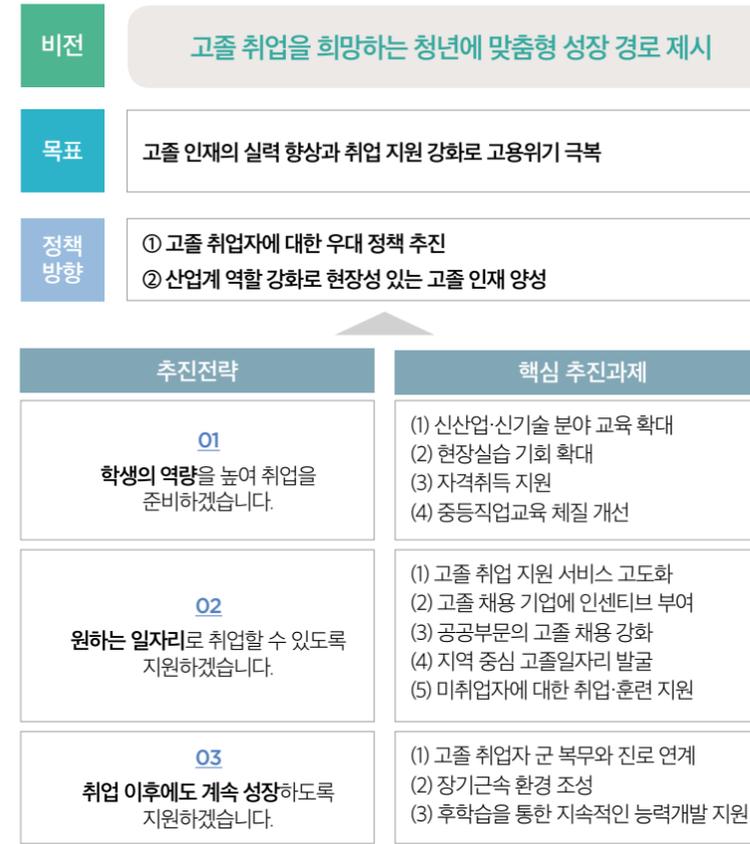
취업은 끝인 아닌 시작... 취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하는 것은 사회진출의 첫 단추이다. 평생직장은 이제 옛말이며, 이제는 계속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먼저 중소·중견 기업으로 취업한 직업계고 졸업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500만 원씩 지원한다. 12개월의 의무복무 이후에는 ‘내일채움공제’로 가입할 수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대출도 지원하여 정주 여건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남학생들은 군 복무가 큰 과제이다. 기업에서는 병역을 마치지 못한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을 꺼리고, 학생들은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시 23개 특기 분야에 직업계고 졸업생을 선발하여, 진로와 연계한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대 후에도 우수 기술병에 대해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맞춤특기병을 채용하는 업체에는 병역지정 업체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제대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했다고 해서 대학진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후학습 여건도 개선해나가고자 한다.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수업시간과 장소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희망사다리 장학금 2유형), 중소기업의 유급휴가후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무 살.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나이이지만,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한발 먼저 사회에 뛰어들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 기업, 지자체와 협력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관찰은 일자리와 후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도록!



직업계고 학생들, 힘내세요!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합니다.

162억 원
 국비·지방비 각 50%

국비 기준
60억 원
 자격증 취득 지원

국비 기준
21억 원
 실습지원 멘토링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60억 원

고졸 취업희망자 자격증 취득 지원



24,000명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현장실습 등
 취업준비 활동 참여학생



50만 원

응시료, 교육비 등
 자격증 취득 비용

직업계고 졸업생이
 실습 보조강사가 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지원합니다.

21억 원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580명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실습지원 멘토링 보조강사
 1교당 1명씩 배치



180만 원

4개월 X 월 180만 원
 재학생 실습수업 내실화 및
 졸업생 사회진출 준비 지원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

글_정원숙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간 학습격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배움의 터전인 우리의 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4월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원격수업 운영, 학교 밀집도 조정을 위한 등교인원 조정, 방역지침 등이 학교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도입한 원격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교육부는 공공LMS를 구축하는 등 원격수업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하는 등 학교의 운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부모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중3·고2 학생 중 일부를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 국·영·수 과목에서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하는 등 학습결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 교사의 79%(약 5만 명 중 4만여 명)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20.7~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학부모의 62.8%(약 42만 명 중 26만여 명)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20.10~11.,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 탐색 연구', 김혜숙)

게다가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대면활동 축소로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에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운동량 감소에 따른 신체 건강 악화도 지적되는 등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 문제를 끼치고 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학생의 학습결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종합적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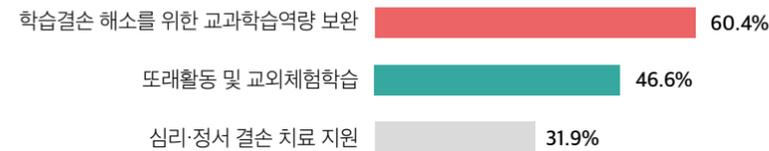
OECD에 따르면 학령기의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내 총생산(GDP)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학생의 학습 등 교육분야 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지난 7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가을학기에 등교수업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프랑스·영국의 경우도 9월 새 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발표

‘2학기 등교확대에 맞춰 학교에서 무엇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학생·학부모·교원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60.4%)’이 가장 필요하며, ‘또래활동 및 교외체험학습(46.6%)’, ‘심리·정서 결손 치료 지원(31.9%)’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림] 2학기 등교확대에 맞춰 학교에서 무엇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가?(복수응답 가능)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종합적 교육회복에 총력 기울인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학생의 학습결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종합적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업하여 교육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 교육부는 내년까지 약 8,000억 원을, 시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 교육예산 6조 원 중 상당량 투입할 계획

주요과제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 대상 1:1 학습컨설팅을 제공하며, 교·사대 예비교사 튜터링 활동을 통해 학습보충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교사의 소규모 학생 그룹 지도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효과를 높이고, 수강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 이외에도 1수업 2교사를 배치하는 ‘협력수업 운영학교’와 다중지원팀을 통한 학습·심리 등을 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시도 등 위험에 노출된 학생의 심리·정서 관련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학교에 방문해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심리·정서상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강화, 다문화·장애·탈북학생 등 교육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지원, 진로지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교원 심리·정서 치유지원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교육과정 개정 등 미래교육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 2021년 하반기에 총 1,155개 학교에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배치, 학급 증축 등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조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 예정

빠른 교육회복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터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선생님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다. 학교 방역의 최전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피로감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하루빨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VENT
꼭꼭 숨어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학생의 학습결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종합적 ○○○○을 위해 2학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다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1. 다양한 직업정보와 직업심리 검사를 제공합니다.
2. (전문)대학 및 학과정보, 전형정보를 제공하며,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을 한 후에 학생부성적분석, 수능성적분석, 대학별 성적분석을 제공합니다.
4. 상시 온라인 및 전화(1600-1615)를 이용하여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사업

위기학생의 든든한 울타리로

학업중단을 '전국 최저'



전체 17개 시도 중 울산 지역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6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대일 멘토링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대안교육 기반 마련으로 가능했다.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예방팀을 만나 그동안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학업중단사업 관련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글_양지선 기자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김혜림(22) 씨는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학교 학력 인정을 받았다. 이 사업은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외 2개 기관과 업무협약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1년간 매일 한 시간 이상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을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공부했다. 그는 “수업을 듣는 게 힘들기보다는 재밌었다. 이전에 검정고시를 봤다가 아쉽게 떨어졌는데,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면서 학력 인정을 받아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돼서 후회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대안교육 지원

김 씨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울산시교육청은 여러 가지 울타리를 마련했다. 학교 내 대안교실과 학업중단속려제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꿈키움멘토단을 구성했으며,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울산 최초 공립 대안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가 개교했다. 이외에 울산시교육청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울산청소년비전학교와 마이코즈학교, 울산시민자유학교 등 3곳이다. 이중 울산시민자유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진로직업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는 컴퓨터, 요리, 댄스, 실용음악 등 15개 기관을 교육청에서 발굴했다. 학생이 원하는 기관에서 체험 중심의 진로직업 교육이 이뤄지며, 위탁교육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현재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은 약 200명에 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학습지원과 학력 인정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울산시교육청

청사 내에 ‘꿈키움센터’를 개소했다. 이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며 상담이나 진학,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 교통카드를 배부받은 청소년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평점 9.03(10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교통카드의 주요 사용처는 교통비(42.7%), 간식비(17.6%), 학습비(13.0%) 순으로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울산 지역의 학업중단율은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2019학년도 전국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은 전체 학생 대비 학업중단율 0.55%로 전국 평균 학업중단율(0.96%)보다 낮은 수치였다. 울산은 2014년 이후 꾸준히 학업중단율 0.5%대를 유지하고 있다.

꿈키움멘토단 통해 일대일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꿈키움멘토단은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과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올해 멘토단으로는 현직교사, 대학생, 상담·진로·학습 코칭 전문가, 전문직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25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학생 집 근처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하고,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한다. 일대일 상담 이외에 매달 한 번씩 진로직업체험,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 단체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예방팀의 하인숙 장학관은 “위기학생 중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거나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은데, 멘토가 24시간 대기조처럼 직접 학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돌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멘토링에 참여한 전체 학생 중 97%가 학교로 무사히 복귀하며 학업중단예방에 큰 성과를

12 지난 8월 14일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16명의 학생들이 멘토, 학부모와 함께 이곳을 찾아 요리, 도예, 목공 등의 체험을 했다.





3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청 학업중단예방팀. 왼쪽부터 지종렬 전문상담사, 한송희 주무관, 하인숙 장학관

4 꿈키움멘토단은 학업중단 위기학생들과 함께 일대일 상담 이외에 매달 한 번씩 진로직업체험,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 단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거뒀다.

지난 8월 14일에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마을 주민이나 전문가를 강사로 모시고 활동이 이뤄진다. 전문 기구들이 갖춰져 있는 실습실에서 학생들은 요리, 도예, 목공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날 16명의 학생들이 멘토, 학부모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

목공 체험을 통해 보석함 만들기에 도전한 김우진(가명·15) 군은 “처음 해봤는데 무척 재밌었고, 다음에는 요리도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보현(가명) 씨는 “아이가 학교 적응을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시간도 보내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다. 다음에도 신청해보고 싶다.”라고 전했다. 2019년부터 3년째 꿈키움 멘토단으로 활동 중인 이현주 씨는 “학생들이 열중하는 모습이 보여서 만족스러웠다.”라며 “앞으로도 멘토링을 통해 위기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 명의 위기학생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지원

꿈키움멘토단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지종렬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예방팀 전문상담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무척 높지만, 인원동원이 어려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학교에서는 낙인효과를 우려해 학생들에게 선뜻 멘토링 참여를 제안하기 어려워한다. 그래도 더 많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고, 또래 친구들과 관계 맺기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매달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겨울방학 중에는 이듬해 학교생활을 응원하는 꿈충전 프로그램, 멘토 선생님과의 사제동행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하인숙 장학관은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내 대안교실, 학교 밖 대안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학생들에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어딘가에 연결돼 있다는 소속감은 꼭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의 든든한 언덕이 돼주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②

EDUCATION NEWS

교육부,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한다

교육부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 결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를 마련한다.

우선 평생교육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1인당 연 35만 원,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중장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상까지 지원범위를 늘린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5년간 1인당 300~500만 원을 지원하며, 활용 가능한 직업훈련 종류가 늘어난다.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평생학습 종합정보 시스템인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하여 자신의 훈련 이력과 일자리 이력 등을 연계·관리하도록 지원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강의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으로 등하굣길 더 안전하게

교육부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등하굣길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어린이 TAAS 웹서비스)은 기존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초등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활용해 학교 주변에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지역을 지정해 교통안전지도도를 만들 수 있고,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사용하여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를 통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 3,500실 확충, 19시까지 운영 확대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의 질 개선과 돌봄 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3,500실(매년 700실, 210억)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한다. 돌봄 운영 시간은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19시까지로 권장한다. 그간 17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14,278실 중 1,581실)에 불과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 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오후 돌봄교실 시간(방과 후~17시)을 고려할 때,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다수(56.4%)인 현재 구조에서는 17시 이후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별 수요에 따라 운영 중인 돌봄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결정하되,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 적정 근무시간에 따른 돌봄전담사 인건비 소요 예산은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위원회 출범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냉철히 성찰해보면 지난 근 4년 동안의 국가교육회의 활동성과가 별무(別無)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조직·운영·활동 등이 여권·정권 편향적 거수기 역할에 치중했다는 혹평을 뼈아프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는 초정권적·초당파적·중립적 대한민국 미래교육 100년의 교육정책 컨트를 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합의제 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교육위, 법사위, 본 회의 등에서 여당 단독·일방으로 의결·통과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미래에 험로(險路)가 예상되는 행보로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게다가 조직·인사·예산권이 없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집행과정을 조율하기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乖離)로 안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방증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운영의 과제와 성공의 열쇠

교육을 '종합예술'이라고 하듯이 교육과 교육정책은 모든 영역·분야와 광범위하고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추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것도 교육 분야다. 물론 국민 모두가 각자 자·타칭 교육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교육정책은 정말 중차대한 의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 제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수행돼야 한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성패의 가늠자이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에 바탕을 뒀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 입안·추진은 합의와 동의에 기반을 뒀야 한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일방적 밀어붙이기 독단은 금물이다. 숙의된 정책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자세로 합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인 국가교육정책·교육과정 수립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장기적 미래 의제다. 배제가 아니라, 포용에 더해 긴 호흡·안목으로 함께 미래를 열어야 한다.

둘째, 완벽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패는 탈정치성·탈정파성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비중립성·비독립성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총 21명의 위원 중 대통령 지명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차관, 교원단체(진보) 추천 1명, 교육감협의회 의장 등 12명이 친여권 인사이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 거수기·정파 편향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교육과정이 단절되지 않는 일관성·영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적어도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에 준하는 독립성·자주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업무와 기능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 교육 비전과 교육정책 제시, 교육부는 구체적 계획 수립·집행이라는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양자의 업무·기능이 중첩(중복)되면 소위 옥상옥(屋上屋) 논란과 혼란이 야기된다. 즉, 예산, 재정, 인력, 행정력 등의 낭비와 양 기관의 업무 상치(相馳)로 인한 혼란과 불협화음을 미리 해소해야 한다.

넷째,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에 더해 교육정책·교육과정 수립, 의견수렴 등이 추진돼야 한다. 관련 법 제13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의견수렴·조정을 해 제시한 안은 관계 기관에서 가급적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국민 의견수렴 시에 정치권과 압력단체·기관 등의 입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국가교육과정은 교육선진국의 사례처럼 '통제'에서 '자율'로 운영의 틀(System)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준비단과 사무처가 교육부에서 독립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상임위원이 3명뿐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무처의 역할·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교육부 출신 관료들의 준비단·사무처 파견을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 준비단·사무처에는 교육부 관료·공무원보다 현장감 있는 교원, 학부모, 교육 전문가, 교원단체 인사 등을 보임해야 한다.

미래교육 100년의 새 창 열었다는 평가 기대

이제 차기 정부인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현실로 다가왔다. 오랜 산고(産苦) 끝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초당파적으로 대한민국 미래교육정책·교육과정을 이끄는 컨트를 타워·거버넌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교육 백년지대계의 초석(礎石)을 단단히 다지기를 소망한다.

정부는 2022년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시행령, 규정, 세칙 등을 교육·학교 현장 친화적으로 다듬고, 예산·재정 등을 확보해 원활한 출범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컨트를 타워로 바로 서 출범하기를 바란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일관성·영속성·안정성을 담보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출범 지원의 열쇠는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다.

먼 훗날 교육사가(教育史家)들이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사를 새로 쓴 '명불허전(名不虛傳), 2022 대한민국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세계화 시대·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 100년의 새로운 창(窓)을 활짝 열어가길 기대한다. ②



캐릭터 디자이너 백윤화 편피스튜디오 대표

공감 이끈 캐릭터의 힘, 역대 매출 작가로



캐릭터 디자이너는 인물이나 동물, 사물 등을 대상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관찰력을 활용해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백윤화 편피스튜디오 대표는 '모찌', '세송' 등 인기 캐릭터를 통해 역대 매출을 올린 유명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피스튜디오 사무실에서 백 대표를 만나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하는 일과 미래 직업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_ 양지선 기자

귀여운 행동으로 절로 미소가 나오는 고양이 캐릭터 '모찌', 파마를 한 듯 복슬 복슬한 털과 애교 섞인 말투가 매력적인 강아지 캐릭터 '세송',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바쁘개&바쁘냥'까지. 메신저를 이용하다 보면 이모티콘으로 흔히 보는 익숙한 캐릭터들이다. 이 캐릭터들을 탄생시킨 건 바로 백윤화 편피스튜디오 대표다. 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9년간 일했고, 회사를 나와 창업한 지도 올해로 9년 차다. 그동안 탄생한 캐릭터로 100개 이상의 이모티콘을 출시했고, 전체 판매 순위 1위는 수십 회를 넘게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취재진을 맞이한 백윤화 대표는 마치 편피스튜디오 캐릭터 중 하나인 것처럼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전했다. 그가 일하는 작업실에는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가득해 마치 놀이공원에 온 듯 동심을 일깨웠다. '모찌' 모양의 명함을 건넨 그는 "명함은 보통 한 번 보고 버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면 쉽게 버릴 수 없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백윤화 대표의 명함은 기자의 모니터에 붙여졌고, '모찌'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이게 바로 캐릭터의 힘이였다.

계원예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에서 '미디어 드로잉'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한 백윤화 대표는 캐릭터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남겼다. 그는 "그림은 오래 배운다고 잘하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과 적당한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전공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며 "창작하는 작업에서는 자기만의 독창성과 색깔이 중요하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양한 경험을 접하고 이를 캐릭터 속의 이야기로 펼쳐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백 대표와의 일문일답.

하나,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캐릭터를 개발하고, 개발한 캐릭터로 이모티콘·배경화면·굿즈(인형, 문구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든다. 사람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이다. 일과 시간에는 아이디어에 영감을 줄 다양한 자료를 찾고 그림을 그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모티콘의 경우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캐릭터 안에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흐름을 다 파악해야 한다. 유튜브나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전시회, 서점을 가거나 영화를 보는 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팀원들과도 아이디어 회의를 하며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눈다.





1 백운화 펀피스튜디오 대표의 작업실에는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가득해 마치 놀이공원에 온 듯 동심을 일깨웠다.
2 고양이 캐릭터 '모찌' 인형과 백 대표가 손으로 작업한 캐릭터 스케치



둘, 2013년에 독립해 지금의 펀피스튜디오가 탄생했다. 창업 과정은 어땠나?

맨땅에 헤딩이었다(웃음). 첫 회사인 네이버에서 9년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이제는 '내 것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다. 당시 일본지사에 근무하며 네이버 메신저 '라인'의 이모티콘 작업을 맡았는데, 그때 탄생한 고양이 캐릭터 '모찌'가 2012년 전 세계 라인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모티콘 5위를 기록한 거다. 회사를 나와 '모찌 2탄'을 만들면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기대와 전혀 달랐다. '모찌' 이외에 '푸푸' 등 다른 캐릭터들도 준비했지만, 창업 후 2년 동안 성공한 캐릭터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그림이 예쁜데 왜 안 팔릴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슬럼프에 빠져있다가 굶어 죽겠다는 생각에 외주작업을 맡게 됐는데, 그때 피드백을 통해 깨달았다. 그림이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대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다. 이후부터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같이 일할 친구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창업 3년 차부터 사람이 모이고 생각도 바뀌면서 리뉴얼된 '모찌'와 '바쁘개&바쁘냥', '세송' 등의 캐릭터가 모두 성공할 수 있었다.

셋, 캐릭터 디자이너가 된 계기는?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놀지도 않던, 아주 평범한 아이였다. 단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용돈을 받으면 만화책을 사거나 대여점에 가서 빌려보곤 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꾸준히 해왔는지 생각해보니 답은 그림이었다. 진로를 정한 후 2학년이 되고 나서야 '입시 미술'이란 것을 알았다. 경북 김천의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학교에서 미술로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가 드물었다. 뒤늦게서야 미술학원에 다니고 영상디자인과에 합격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덕분에 지금도 그림이 재밌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래 배운다고 잘하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과 적당한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공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넷, 캐릭터 디자이너의 미래 직업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무궁무진할 거라 본다. 인기 여부를 떠나 캐릭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다. 문화는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하는 힘을 가진다. 약 20년 전 온라인 채팅서비스

'세이클럽'에서 '아바타'를 최초로 선보였다. 이 아바타가 변화해오면서 지금의 이모티콘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 세대에는 또 다른 이름과 서비스로 바뀌겠지만, 캐릭터가 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다섯, 앞으로 계획은?

캐릭터로 지구 정복하기(웃음). 펀피스튜디오의 캐릭터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 목표다. 월트 디즈니,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돼서도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창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모티콘이 앞으로는 또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이미 액션콘, 사운드 이모티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지 않나. 최근에는 이모티콘과 게임을 접목한 '게임티콘'을 개발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각각의 캐릭터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유튜브 등 플랫폼을 넓혀가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다. 예전에 인기 있던 캐릭터들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다. 반짝스타처럼 잠깐 인기 있는 캐릭터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마지막, 캐릭터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보면 마치 롤모델처럼 모든 것을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지만 창작은 독창적인 영역이다. 요즘 웹툰 학원이나 이모티콘 학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학원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나 방법을 배울 수 있겠지만 창작을 배울 수는 없다. 기술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지만, 독창성은 영원하다. 그림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꿈을 꾸는 단계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나만의 생각의 나래를 펼칠 재미난 방법을 찾아보자. ②

TIP BOX |



TIP. 1 _____ 준비 과정

대학의 시각디자인, 시각미디어, 시각정보디자인, 영상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설교육기관에서 디자이너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는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데, 캐릭터 디자인과 관련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자기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좋고,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가 있다. 학력이나 자격증 취득보다는 디자인 실력이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TIP. 2 _____ 적성 및 흥미

사물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력과 데생 능력 등 미적 감각을 가지고 독창적이면서도 개성이 살아있는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성, 상상력, 기발한 발상 등이 요구된다.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까다로운 신세대의 취향이나 변화하는 사회의 트렌드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새로운 캐릭터의 창조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술형과 탐구형의 사람에게 적합하며, 꼼꼼하며 혁신적이고 성취를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 참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땀방울을 구슬로 빔어내는 땅

강진

康 津

아스팔트가 더위의 산파가 되어 해를 받아내고 있다. 여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다. 그림자는 뜨거웠던 계절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다. 맴맴. 찌르르 찌르르. 팔팔. 여기저기서 울리는 뜨거운 외침이 더운 계절을 지나온 이들의 치열함을 알려온다. 날숨이 하늘을 두드린다. 둥둥둥.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해에서 북소리를 듣는다. 바스러진 투명한 공기가 한낮의 별빛이 되어 눈에 담긴다. 가로수는 줄지어 서서 그 빛을 받아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손 그늘 한 점이 여전히 필요한 가을 초입, 그늘을 병풍 삼아 두른 땅 강진으로 간다.

글_ 강지영 객원기자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

이른 아침, 다산초당을 찾아 산 초입에 섰다. 다산과 초당만을 이정표로 준비도 채비도 없이 무작정 달려온 참이다. 산속 우물이 되어 산을 품고 있을 초당을 보고 오면 말라 갈라진 목을 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인 까닭이다. 초당에 다녀오면 타는 듯했던 여름의 열기를 송별할 수 있으리라는 무모한 믿음. 오솔길은 첫걸음도 떼지 않은 길손에게 가을 그늘을 부쳐오며 잘 왔노라고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잡고 나무 그늘 품으로 들어간다.

숲은 나무로 빼곡하다. 울울창창한 경사진 산길을 오른다. 뿌리와 돌로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가며 정수리 따가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라고 응달을 전해주는 나무에 새삼 감사한 마음을 표해본다. 짙은 그림자 사이로 드문드문 드리우는 해와 졸졸거리는 물과 바닥을 뒤덮은 푸른 이끼. 모자라도 양산으로도 가릴 수 없었던 여름의 열기를 품은 그늘에서 푸르름을 읽어



강진만



1



2

1 다산초당
2 고려청자박물관
3 백련사

낸다. 선선함을 더해가는 가을 그들의 위엄을 느끼며 초당을 향해간다.

대표적인 실학 사상가인 정약용은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정약용은 박학하였던 이익 학풍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을 이어갔다. 현실과 거리를 보이는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천지와 인도를 분리하여 인간을 중심에 둔 인사(人事)를 설파하던 정약용은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한다. 목숨만 겨우 부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 유배지 생활에서 정약용은 학문과 교육에 힘쓰며 암흑의 날들을 학자로서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삼는다.

숨이 턱에 차오를 즈음 초당을 만난다

산 소리가 초당에 맴돈다. 처마 끝을 타고 흐르는 물 소리가 시원하다. 다산의 붓끝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먹 내음이 은은하게 번져온다. 초당 옆으로 난 물 길을 앞두고 다산이 즐겨 차를 마셨다는 다조 반석

으로 시선을 옮긴다. 물소리를 한 모금 삼키며 온몸을 적시며 아래로 수렴해 가는 땀의 순행을 읽어낸다.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 귀를 기울일 것, 땅을 적실 것. 물이 적요한 가르침을 남긴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을 것.’ 순리를 읽어내고 정명을 다할 줄 알았던 다산의 가르침이 물소리를 타고 흐른다. 청량한 물길이 마른 가슴을 지나간다.

초당에서 숨을 돌리고 다산 사후 지어진 천일각을 둘러 나온다. 초당 아래 자리 잡은 다산박물관으로 들어간다. 하얀 천장의 별자리와 그 아래 조형물을 거쳐 다산의 일생을 훑어나간다. 담장을 낮추어 자신을 찾는 이들이 쉬이 드나들 수 있게 한 선생의 마음을 읽으며 ‘사람을 귀하게 여김은 신의가 있음이다. 무리 지어 모여 함께 즐거워하다가 흩어진 후에 잊어버리는 것은 짐승의 도리다.’라는 말을 곱씹는다. 박물관에 산바람이 인다. 팔랑이는 나뭇잎이 책장이 되어 펼쳐진다. 나무를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뿌리인 것처럼 서책을 엮는 힘은 사람을 위하는 가슴과 손이다. 유배를 떠나와 책을 벗 삼아 긴긴 시간을 채워온 다산의 세월을 머금는다. 박물관을 나와 다산초당이 있는 산으로 고개를 돌린다. 숲의 잔영이 다산을 산에 데려다 놓는다.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선생을 눈에 담으며 다음 여정으로 향한다.

다산과 혜장선사의 우정이 깃든 백련사

다산초당 바로 옆에 백련사가 있다. 속세화 된 불교에서 본래의 불교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백련 결사 운동과 동백길로 유명한 백련사에는 다산과 혜장선사의 우정이 깃들여 있다. 다산이 혜장선사를 찾아 밤새 <주역>과 <역경>을 논하였다는 이야기는 익히 잘 알려진 바다.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오가며 이어진 두 사람의 교류는 불교와 유교를 넘나드는 학문의 장이 되어 펼쳐졌다. 초당과 절은 그 길을



3

품고 있고 그들의 대화는 <견월첩>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찬 바람이 이는 계절을 붉게 물들였을 동백이 초록 잎 사이에 숨어 가을을 알려온다. 잎 사이에서 태양의 반짝임을 본다. 꽃잎이 진 자리에 구슬 같은 열매가 맺힌 동백나무 숲을 천천히 지나온다. 백련사 앞, 벽을 앞에 두고 있다. 밧그레한 수줍음과 작열하는 여름의 열기를 동시에 머금은. 영성하고 성긴 분홍벽이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 배롱나무 꽃을 따라 백련사로 들어간다. 대웅전, 산신각, 명부전을 지나 천불전 앞에 선다. 눈앞에 강진만 포구가 있다. 탁트인 포구가 지상의 하늘이 되어 눈에 들어온다. 하늘과 하늘이 맞닿은 자리에서 인사(人事)가 펼쳐진다. ‘인간으로 흐르는 물은 돌아옴이 없다던’ 혜장선사의 시 한 구절을 가슴에 담고 마지막 여정을 향해간다.

500년 고려청자의 역사를 불러들이다

백련사에서 이십여 분 달려 이른 곳은 고려청자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담겨있고 있는 고려청자박물관이다. 강진에는 200여 지의 청자 요지가 있다. 고려청자의 시작과 끝을 되살려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강진은 청자와 미디어아트 전시실 그리고 체험 공간을 마련해 500년 고려청자의 역사를 불러들이고 있다. 박물관을 천천히 거닐어 거울로 청자를 되살려낸 전시실로 들어간다. 다산과 혜장의 조선과 푸른 흙에 담긴 고려와 우리가 머금은 오늘이 어지럽게 겹쳐진다.

전시실을 돌아 나온다. 배롱나무 꽃이 폭포가 되어 쏟아진다. 배롱나무 꽃잎이 흩날린다. 지나온 여름이 우두둑 떨어져 내린다. 꽃잎이 허공을 무대로 그려내는 군무를 보며 생각한다. 저것은 가을맞이를 위한 손 그늘이라고. 허공의 두드림이 눈앞의 그것이 벽이 아닌 문이었음을 알려온다. 살포시 바닥에 내려앉은 꽃잎에서 손 그늘을 본다. 강진이 말한다. 모두가 치열하게 더운 날을 지나왔노라고. 가을 그들이 여름 땀을 구슬로 빚어내고 있노라고. ㉔

‘금메달’이 아니어도 괜찮아

글_ 박경호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 학술연구교수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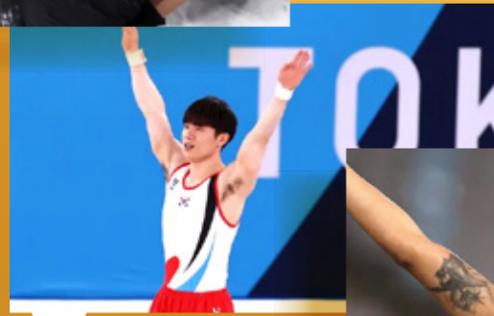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탁구 신유빈 선수



올림픽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
결선에 오른 서채현 선수



도쿄올림픽 4강에 진출한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남자 기계체조 마루운동 결선에 오른
김한술 선수



한국 근대5종 사상 첫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선수

사진출처 : 2020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66

올림픽 챔피언만을 동경하던
우리의 스포츠 문화 또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제2, 제3의 우상혁과 같은
미소를 우리는 더욱 빈번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99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화는 1년이 지나 점화되었다. 이번 올림픽은 개막 직전까지 개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을 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관중 없이 개최된 올림픽이었음에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오히려 지연된 시간만큼 더 구슬땀을 쏟으며 대회를 준비하였다. 대회 중 다양한 신기록이 쏟아져 나온 것이 선수들의 이러한 노력을 증명해 준다.

특히 올림픽의 역사와 스포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로서 이번 도쿄올림픽의 특별한 한 장면이 너무나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바로 남자 육상 높이뛰기 결선에 진출하여 24년 만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마지막 도전에서 아쉽게 실패한 우상혁 선수의 환한 미소였다. ‘마의 높이’라는 2m 39cm에 도전하여 실패한 우상혁은 메달을 딴 선수만큼 환하게 웃으며 스스로 “괜찮아”를 외쳤다. 지난 5년간 올림픽을 준비하며 흘린 땀방울을 생각하면 메달 획득에 실패한 것이 다소 아쉬울 법했지만, 챔피언과 같은 미소를 지은 그는 최선을 다한 스스로에게 너무나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상혁의 미소는 과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였다. 과연, 우상혁이 태어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결승에서 안타깝게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준결승에서 패배하여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 아니면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4위에 입상한 선수 중에서 우상혁처럼 미소를 지은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기억하는 올림픽 은메달과 동메달리스트, 그리고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대부분 ‘죄인’ 같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로 마치 대한민국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서 2, 3위에 오른 것이 과연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였을까? 그들은 왜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라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 선수’로만 기억되어 왔을까?

내셔널리즘에 매몰됐던 한국 스포츠 문화

지난 50여 년간 한국의 스포츠를 지배해 온 소위 ‘스포츠 내셔널리즘’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문화에 결과 지향적인 특성을 뿌리내리게 하였다. “패배하면 대한해협에 몸을 던지겠다.”라는 필승의 각오가 마치 상징처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강요되던 시대였다. 1970~80년대 굶주린 국민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적 위상을 선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개체가 바로 스포츠였다. 수십 년간 각종 스포츠에,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에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무게감이 가중되면서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거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즐기며’ 운동한다는 대명제는 망각한 채 스포츠 내셔널리즘에 매몰되어 왔다. 이러한 강요된 책임감이 그동안 우리의 올림픽 선수들에게서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유일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 챔피언만을 동경하던 우리의 스포츠 문화 또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국가대표를 꿈꾸기보다는 스포츠 참여에 의미를 두고, 운동을 통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소위 '생활체육'의 가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정책적 테두리 안에서 급속하게 발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방향성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전문체육의 육성'이라는 이상향을 바라보고 있다.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전문체육 육성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근간을 둔다. 즉, 과거의 학교 운동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신체조건이 특정 종목에 적합하다고 하여 코치나 감독이 억지로 선발하고 훈련시켜 메달 따는 기계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지양한다. 본인이 하고 싶은 종목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이것이 우리가 이상적이라며 동경하는, 소위 스포츠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에 뿌리 내려 있는 문화적 토양이다. 그 대신 본인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최고 수준의 선수로 성장하고자 노력한다. 자신의 한계를 증명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이다. 의사인 아르헨티나 유도 국가대표, 의상 디자이너인 미국 펜싱 국가대표, 초등교사인 미국 육상선수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생활체육 활성화 토대로 전문체육 육성

장기적으로 보면, '자발성을 전제로 한 생활체육 토대의 전문체육 육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체육전문가들 또한 동의할 것이다. 다만

'생활체육으로 시작해서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을까?', '비인기 종목은 선수 수급이 어려워지고 도태될 것이다.',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이 현재와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등의 반론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할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가며 매우 현실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다. '왜 반드시 올림픽 메달을 따야 하는가?' 또, '왜 우리가 꼭 스포츠 강국이 되어야 하는가?' 아울러 '왜 그 종목은 비인기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말이다.

2021년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가보지 않은 길'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불안감도 있고 기대감도 상존한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가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감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난 50여 년간 전문체육 중심의 체육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체육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가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시행착오가 존재할 것이며 과거로 회귀하지는 현장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자신할 수 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여 스포츠 참여 자체에 가치를 두고, 성적보다도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다는 측면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스포츠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면 분명히 제2, 제3의 우상혁과 같은 미소를 우리는 더욱 빈번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국가대표 선수, 동호회 선수 여부를 떠나, 스포츠 참여를 통해 활짝 웃을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더욱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도쿄 하늘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



FOCUS 01

여름방학에도 학교 문은 열려 있어요~

홍지희 명예기자

7월 중순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던 2020년부터 2021년 1학기까지 총 3학기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염려로 인해 2학기는 전면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은 기본! 방학 중이라도 학교는 언제나 학생에게 열려 있다. 방학 중에도 실시하는 다양한 연포초등학교(교장 김경주)의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영어캠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지 않거나 비대면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3단계까지는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방법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대면 운영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10명 내외로 소인수 운영하도록 안내하였다. 연포초등학교 영어캠프는 7월 중 4일간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권 국가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3~6학년년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코로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된 이번 여름방학 영어 캠프는 3·4학년, 5·6학년 총 2개반으로 나누어 학급당 15명의 학생들로 원어민 선생님과 외국인 선생님

이 각 클래스에 맞게 수준별 의사소통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다깨침 썸머스쿨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및 전면등교 시 원활한 학습 적응을 위하여, 여름방학 중 담임교사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맞춤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다깨침 썸머스쿨'이다. 여름방학 중, 총 20시간을 담임교사가 각 학급의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하게 되는데 연포초등학교에서는 총 7개의 다깨침 썸머스쿨 학급이 운영되었다.

1학년은 한글미해득 학생의 한글 깨우침을 돕고, 3~6학년은 각 학급의 학생에 맞춰 부진과목에 대한 복습이 진행되었다.

3. 두드림 문화체험 프로그램

연포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월 2회, 토요일 오전 '토요영화제'라는 두드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이기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학교 차오름실에서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방학에도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열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FOCUS 02

‘독도깨비’ 독도교육용 탐방루트 개척에 나서

양만주 명예기자

“만약 선생님이 당장 학생들과 독도를 탐방해야 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학생들의 울릉도와 독도탐방을 돕기 위한 독도교육용 전문루트가 필요합니다.”

현직교사 4명으로 구성된 교사독도탐방동아리 ‘독도깨비’가 독도교육을 위한 울릉도·독도 교육탐방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현장 탐방에 나섰다. 이 탐방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기획한 교사 독도탐방동아리 사업에 ‘독도깨비’가 선정되어 4명의 현직 초등교사가 의기투합하여 현장에 와닿는 독도교육만을 위한 전문 교육탐방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8월 5~7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탐방은 독도 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등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장소와 루트를 탐색함과 동시에 ‘독도명예주민증’과 같이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자부심과 수호의지를 다잡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여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였다.

독도교육 탐방루트는 단순히 울릉도, 독도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장소 안내와 더불어 탐방 시 유의사항, 소요예산, 소요시간, 숙소 및 교통편 등을 망라한 지금까지 없었던 독도교육용 전문루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 시국을 반영하여 ‘독도의 달’ 10월에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3번을 도전하였지만, 기상상태로 인해

생애 처음으로 독도에 입도하게된 문장초 김동영 교사는 “삼대가 덕을 쌓아야 밭을 들일 수 있다는 독도에 3번 만에 드디어 밭을 들여놓게 되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이 감정을 현장의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탐방루트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 감동을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연구회 ‘독도깨비’는 초등 11명의 교사로 이루어진 현장의 독도교육을 함께 공부하는 연구회로 새로운 독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오는 10월 독도의 날에 즈음하여 제2회 독도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며 디자인부문과 영상부문의 다양한 학생 및 교원들의 작품을 공모한다. 수상작은 유튜브 및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교육가족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예정이다.



HONORARY REPORTER

FOCUS 03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학교와 사회의 공존 실천해요

성완 명예기자



경남 밀양시 세종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 중이다. 이 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 활동과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학생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무인 매점을 운영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이로 얻게 된 수입을 지역사회에 되돌려 줌으로써 사회와의 공존을 실천하고 있다. 경상남도 내에는 초·중·고 중에서 단 9개의 학교만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고등학교는 교육·복지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매점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매점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문, 판매, 결산, 소비자 설문조사, 홍보, 매장 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운영되고 있다. 매점 수익금은 주주 총회를 통해 장학금 및 학생 복지, 사회 복지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다. 자발적인 학생들의 참여로 공공의 이익

을 창출하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주간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동아리 결과물을 교내에 전시하고,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였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증하였고, 이를 판매하는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였다. 그동안 무인 매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구입한 식품세트(57박스)와 아나바다 장터 운영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눔과 상생의 기쁨을 배울 수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미래의 인재로서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시민의식을 신장시키는 현장 참여형 교육을 펼칠 수 있었다. 배워서 남 주는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미래교육이 지녀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㉞

204,69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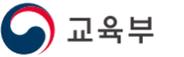
2021년 4월 1일 기준 전 세계 22개국에 우리의 문화재 204,693점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89,498점(43.7%)으로 가장 많이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54,171점(26.5%), 독일 13,309점(6.5%), 중국 12,985점(6.3%), 영국 8,796점(4.3%), 프랑스 5,684점(3.8%) 순으로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떨어져 있을까? 일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훼손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됐다. 당시 조선의 고미술품 유통에 경매의 형태를 취하지만 일제강점기는 도굴이 일상화되다시피 한 시절이었고 미술품 밀매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1906년 3월 초대 통감에 취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고려청자 수집에 진력하여 1천여 점의 넘는 고려청자를 수집했다고 전한다. 그가 반출한 도자기 중 우수한 103점은 일본 왕실에 헌상되었다가 1965년 한일회담 때 우리나라로 반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 있는 많은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은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된 의궤 등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외규장각 의궤(왕실과 국가에서 의식과 행사를 개최한 후 준비, 실행 및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책)는 1975년 박병선 박사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 간의 임대형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환수를 위해 노력한 지 20년, 약탈당한 지 145년 만인 2011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외규장각 의궤는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해야 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협의하지 않으면 국립중앙도서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며, 대한민국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수도 없다. 온전한 환수를 위해서는 소유권을 우리 정부가 가져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문화재는 약탈 외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외교와 선물, 매매 등 다양한 방식을 거쳐 해외로 나갔다. 약탈당한 문화재는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혼란스러운 시절에 유출되어 경로파악이 쉽지 않으며, 문화재마다 소유권이나 현지 법령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때문에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기증, 매입 등 다양한 접근과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②

자료제공=국외소재문화재재단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

꾸미와 함께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꾸미야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뭐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적극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야



유아 맞춤형 지원

상담 지원

유아·학부모의 심리·정서 상담 지원

발달 지원

유아 행복감 회복 지원을 위한 방과후 과정 모델 운영

신체건강 회복

충분한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

교원 정서 지원

교사 대상 정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교육환경 조성

유치원·교사별 노트북 등 기기 제공 및 무선망 구축 지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유아의 신체, 언어, 정서, 사회성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종합 지원



직업계고 취업 지원 강화

원격수업 지원

· 원격수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업자료를 매일 개발·공유

취업역량

· 기능사 자격시험(18개) 추가 검정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

사회진출

·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지역 중점 산업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한 직업계고 학생(졸업생 포함)의 취업역량 강화 및 채용연계 지원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 다문화 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운영
· 탈북학생 1:1 멘토링 확대

장애학생

· 장애 학생 맞춤형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전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
· 부모상담, 가족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인상 등 교육비 지원 확대
· 잠재력 있는 중고교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지속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

· 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돌봄, 학습, 상담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 다문화·탈북·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및 장애학생 가족 통합 지원
▶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멘토링 등 성장 지원